

안동공단 고무제품 공장 대형화재

유독가스가 인근 1000여가구 뒤덮어 ... 인명피해 없으나 공장 전소

안동공단의 한 고무제품 제조기업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.

1월4일 오후 3시12분경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안동공단의 한 고무제품 제조기업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.

불이 나자 김해와 부산, 창원지역 소방차 30여대와 소방헬기 1대가 진화에 나서 1시간 30분여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.

공장에 있던 사람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내부가 대부분 불에 타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.

고무제품이 타며 나온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1000여 가구가 밀집한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뒤덮어 집안에 있던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다.

또 불이 난 공장과 불과 20여m 가량 떨어진 곳에는 대형 산업용 윤활유 탱크 7개가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.

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05>